

위대한 김일성 -

조동신문

김정일주의 만세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7호 [루체 제25015호] 주제 104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사설

선군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오늘 우리 조국은 무진막강한 선군의 위력을 파시하며 광활한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풍진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대회의 정신을 높이 달고 선군선조의 영웅적기상과 불멸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맞이하고있다.

선군절은 백두에서 개최된 선군혁명령도의 줄기찬 계승과 우리 당파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한 역사의 날이다. 이 날이 있어 수많은 유명무명의 혁명선열들이 고귀한 피땀을 바쳐 헌재한 혁명의 모든 진위물들이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조국의 권위와 존엄, 국력이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수십년세월 전쟁을 모르고 살아왔고 위대한 승리의 네대들을 궁지 높이 추억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 가는 오늘의 벅찬 시대도 맞이 할수 있었다.

뜻깊은 선군절의 이 아침은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으로 빛내이시고 대대손손 턱을 누릴 강성번영의 시대를 펼쳐주신 주체의 선군태양 김정일동지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형사에 빛나는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절세의 애국자,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혁사의 준엄한 사려과 풍파를 해치며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암으시고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에 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세우신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쇠철갑사단을 찾으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선군령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였다. 그 길은 험연할수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 혈전의 길이었고 그 누가 몰라준대도 오직 희망하고 가야 하는 신념의 길이었으며 걸음을걸을 사신을 해쳐야 하고 불월주아로 혁명을 이끌어야 하는 혁생정신의 길이었다. 다른 정치가들 같으면 엄두조차 냄수 없는 간고한 선군장성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 후대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쉬임없이 걸으신 여기에 김정일동지의 결세의 위인성이 있다. 강철의 선군령장의 초강도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개기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강대한 힘을 키우게 되었고 주체혁명은 혁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불폐의 위업으로 만방에 존엄영광이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절치시여 이룩하신 업적은 하나하나가 다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이후 우리 조국이 미국을 피수로 하는 세계의 제국주의련 핵세력과 단독으로 당당히 맞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현진현승을 이룩하고 적대세력들의 끌임없는 제재봉쇄속에서 불폐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뼈보유국, 인공지구 위성체작 및 탈사국으로 솟구쳐오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중의 기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책, 선군혁명로선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이 자주주의 성세, 사회주의경보로 위용떨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투쟁으로 혁사적전환의 이룩되었으며 전대미문의 파국적후파를 초래할 새로운 세계대전이 방지되었다. 우리의 승리는 미제의 강권과 일방주의의 지배하는 국제정치질서에 파괴구를 뚫어놓고 위축되었던 세계자주학위임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준 세계사적대변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인민의 선군령도과정에 선군혁명 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향으로 정립하여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사회주의의 위업, 자주위업수행에서 둘이위고나가야 할 백승의 가치를 마련하였다.

동서고백에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치사에 흔적을 남긴 이름있는 정치가와 위인들이 많았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처럼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힘을 풀어낸 사람은 없었다. 절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을 업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은 그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전권을 품어온다. 고난의 천리를 뛰어 넘어온 우리 혁명을 끌어막아보려는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횡포무도하고 비열한 제재압박책은 국도에 달하고있다.

현 국제정세와 우리 혁명실천은 치열한 사회주의수호전기반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이 전면에 나선 시기일수록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지역주민 혁명유산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더더욱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즐거워하고 흐르고있다.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야말로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개조혁화하여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는 만능의 보검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김정은동지께서 피눈물속에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에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으신데 이어 우리 혁명의 배 대로, 혁명의 주역군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가 지니고있는 높은 사상정신력, 혁명적기질을 전제 인민이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혁명대오전반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히 최정예전투부대로 만들고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장래를 훌륭히 떠나갈 수백만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당의 선군정치가 펼친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혁사와 경험은 선군이야말로 계속혁명정신이 투철한 정치적혁량, 명도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원 당파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수 있게 창조의 철학을 세차게 지펴려고 있다. 선군이야말로 전투적기치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선군은 새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종결산하기 위한 필승의 보검이다.

미제는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친구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끊임없이 혁명신념과 의지를 억제해 버려주고 있다.

선군혁명의 핵심, 주력군인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사상적변모와 군사기술적위력, 당정책옹수를 통해 전진하고 선군혁명의 존엄이 새롭이 올라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에 뿐려놓으신 강성부흥의 씨앗들이 풍만한 결실을 맺고 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화들이 다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에 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끌없이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사회주의의 위업, 자주위업수행에서 둘이위고나가야 할 백승의 가치를 마련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국력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횡포무도하고 비열한 제재압박책은 국도에 달하고있다.

현 국제정세와 우리 혁명실천은 치열한 사회주의수호전기반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이 전면에 나선 시기일수록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지역주민 혁명유산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더더욱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선군은 우리 인민의 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다.

세상에서 가장 흥룡한 우리 인민에게 남들이 부려워하는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생의 넘원이었다. 우리 당선군정치의 위대성은 무적의 총대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상에서 절실히 필요한 평화적환경을 굳건히

견는 길이 선군의 길이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그 어떤 시련이 가로놓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켜 주신 선군의 길에서 0.001mm의 에너리나 탈선도 모르는데 선군사상 선봉자들의 투철한 법장과 자세가 있다. 우리는 선군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당시의 병진로선을 견결히 용호판철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밟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사상과 의지, 면도篷모를 완벽하게 계현하고 선군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강철의 선군령장, 실력가형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우리는 온 세계가 공인하는 절대적권위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부흥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빼속길이 새겨안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을 다해 밟들어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령결사 용위정신이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 자지 령도자의 혁명사상으로, 톤튼히 무장하고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령도자의 참된 혁명동지, 혁명전우로 될수 있다. 당시 행방과 결정, 지시들을 무조건 끌까지 완벽하게 집행하는 혁명적인 규율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 선군의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오늘의 현실은 자위적국방을 험비로 다져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이며 억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풀어나다져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흡 7련대칭호쟁기운동과 균위부대운동을 험비로 다져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세상에 자기 수령을 닮은 혁명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 전체 장병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과 투쟁정신, 고백한 풍모를 적극 따라배워 군무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지금 이 시각 영광한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 등에 대처하여 결전태세를 갖추고 최후승리를 위한 투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적들의 침략전쟁에는 성스러운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하려做的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깃발을 날카롭게 벼리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군대에는 원쑤들이 언제 어느때 덤벼들어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전체 인민의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오늘 세계를 굽어보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용대한 설계도와 혁명시간을 짐짓같이 세진 우리 인민군인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맨 앞장에서 풍족히 내달리고있다.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이 인민군대의 발걸음 속도를 따라 끌고있다. 우리나라가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나갈 때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미래는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판철을 자기들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로 여기고 결전장을 벌려 진행해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사상판점과 투쟁기품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강성국가건설의 맨 앞장에서 풍족히 내달리고있다. 대중적영웅주의와 숭고한 혁생정신으로 당정책을 결사판철하며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장산이 번하게 하는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도처에서 일으켜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선구자적모범은 온 나라에 새로운 조선속도 창조의 힘길을 세차게 지펴려고 있다. 선군이야말로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하루빨리 인민의 모든 굴과 리상이 실현되는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워 태양민족의 존엄을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철석의 의지와 원민군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구현한 위력한 투쟁방식이다. 사회주의건설전진장들파인민생활과 직결된 대상건설장들에서 군민협동작전의 무한대한 힘을 충발동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파와 선군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선군혁명의 전위조직이며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선군령도입적을 결집해나가야 한다. 특히 선군의 덕을 입으며 자라난 새 세대를 대로로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공세적으로 실현성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선군의 힘을 입으며 자라난 새 세대를 대로로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화하고 확장화하는 방향에서 군민협동작전의 무한대한 힘을 충발동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파와 선군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선군혁명의 전위조직이며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선군령도입적을 결집해나가야 한다. 특히 선군의 힘을 입으며 자라난 새 세대를 대로로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화하고 확장화하는 방향에서 군민협동작전의 무한대한 힘을 충발동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일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선군령도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밟들어보시고 장군님의 전선,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리를 조이며 다져온 무적필승의 군魂은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반공파국, 반사회주의의 핵통을 걸을마다 제압분쇄하고 수십년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풍파산시켰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철학전쟁의 불구름을 물이온다면 우리의 혁명적무장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처박을 것이다. 선군정치의 불폐의 위력이 있어 우리 민족의 풍랑에 대한 대처를 풀어놓을 것이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생존권을 염중히 위협하고 침해하는 불구대천의 원쑤들을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선군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드리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경의는 강철수준에서 환생토록 걸어오신 선군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장군님의 전선,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리를 따라 웃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철학전쟁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일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선군령도를 더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끝없이 실시시키며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과 군인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풀어내고 당중앙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풀발시키는 퇴편이 될것을 바라고있다. 당조직들은 집단을 회복하고 단결된 대가정으로 끓어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당사업의 혁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백승을 아로새겨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리사와 업적이 우리를 고무·충동하고 회세의 선군령도의 세련된 령도가 우리를 새로운 승리에 이끌기 위해 주체의 선군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창창하다.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파와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신념으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백두의 천출령장의 스스러운 혁명생애를 승리와 세기적변혁을 정사에 아로새기며 천추만대에 길이 전하는 뜻깊은 선군침을 맞이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과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을 누리에 떨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실록을 기습드롭게 들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애국충정과 결집한 반제지주의 신념, 특출한 정치실력과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이룩하신 고귀한 선군혁명령도업적이 있어 우리 공화국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변혁을 정사에 아로새기며 천추만대에 길이 전하는 뜻깊은 선군침을 맞이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과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을 누리에 떨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진되었다.

대회장인 4. 25문화회관은 장장 50여

성상 영웅적인 강행군한생을 수놓으시며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범접 할수 없는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혁

보우국으로 일떠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원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불세출의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끊어버리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인민주권,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 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파평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무역기관, 내각, 군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사상을 펼쳤던 것이다.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칠죽꽃 편 선군의 산악 철령을 형상한

주석단배경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경축 55돐》이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

을 끌없이 빛내여 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무역,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

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 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

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

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파평기동

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무역기관, 내각, 군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사상을

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인민무력부장인 록군대장 박영식동지가

대회에서 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력사는 혁명의 승리

직전진파 더불어 영원히 흐를것이다》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되새기며

주체의 선군혁명사상을 펼치는 보검으로

들어위고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끌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파라 백두의 혁명정신,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으로 반제반미대결전파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끓어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노래 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선군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제리아국회 상원 의원이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나이제리아 국회 상원 의원 아부둘라호 아다무가 18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선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 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훌륭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행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를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주체혁명무력 건설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삶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화 같은 흥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 파

백두산점체위인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막시기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멀차보존실

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주체혁명무력 건설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끌었

이 빛내여 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풍처 배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워업을 끌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본사기자

영원히 빛을 뿌릴 선군혁명사상과 업적

선군절을 맞으며 국제사회계는 55년전 선군혁명도를 시작 하신 그날로부터 혁명생애의 마지막 막시기까지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오신 회세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끌어모았다.

한편 꾸마의 브랜씨 라피나통

신, 방글라데슈 슈신문들이 《방글라데슈 투데이》, 《데일리 스타》, 《인디스트리》, 《파이낸셜 앤드 프레스》, 《블리즈》를 비롯한 방글라

데 슈의 주요신문들, 인더아인

인 전선대련 합부대들이 불의 전진을 지원할 지휘관들을

이 입명되여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었다.

수리아인문 《티슈린》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선인민

군 전선대련 합부대들이 불의 전진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기지에 진입한 것을 기록하였다.

제25군단장인 김정은령도자

는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들을

이 전진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꾸마의 브랜씨 라피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선인민

군 전선대련 합부대들이 불의 전진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 명령은 조선로동당 중앙군

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하

달되었다.

회의에서는 적들이 48시간

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들을

격파하기 위한 정체

군사적 대응계획이 토의되었

으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 합부대들이

작용을 전압하기 위한 지역의

공격작전계획이 검토, 비준되

었다.

《방글라데슈 투데이》, 《뉴스

투데이》, 《데일리 스타》, 《인디

스트리》, 《파이낸셜 앤드 프레

스》, 《블리즈》를 비롯한 방글라

데 슈의 주요신문들, 인더아인

인 전선대련 합부대들이 불의 전

진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제25군단장인 김정은령도자

는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들을

이 전진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제25군단장인 김정은령도자

는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들을

이 전진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제25군단장인 김정은령도자

는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들을

이 전진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제25군단장인 김정은령도자

는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경축 우표들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경축 우표들(소형전지 1종, 흑금증지 1종)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경축』, 『주제 49(1960) - 주제 104(2015)』, 『선군절 8.25』라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백전백승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경축 우표들(소형전지 1종, 흑금증지 1종)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경축』, 『주제 49(1960) - 주제 104(2015)』, 『선군절 8.25』라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우표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경축』, 『주제 49(1960) - 주제 104(2015)』, 『선군절 8.25』라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전국적 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민족 음악예술 종합 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경축 전국적 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민족 음악예술 종합공연 『선군승리 영원 하리라』가 2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에는 각 도민족음악에 술연경 당선자들이 출연하였다.

주영길 직총장, 노동자들,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무대에 남성 5중창과 합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고재창 『선군승리 응원 이』 등의 종목들이 웃랐다.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리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세워 주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불멸의 정신으로 고창하는 노래를 불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북남고위급긴접촉 진행

【관문점】 8월 24일 밤 조선중앙통신】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관문점에서 열린 북남고위급긴접촉이 24일에 끝났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북남고위급긴접촉은 최근 북남사이에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파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 하기 위한 당면 국회 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브루스 티켓을 개최하며 앞으로 여론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쪽은 최근 북남사이에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례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시) 선군절 이 아침에

눈부신 거리에
북방은 강산에
쏟아져내리는 억만 가닥 해살도
선군절 이 아침
류달리도 벽찬 환희를 안겨주누나

날마다 커만 가는
이 땅의 행복을 알아볼수록
내 조국의 존엄을 생각할수록
고마움에 사무쳐 불려보노라
아, 선군!
우리의 선군!

젖어드는 이 가슴에 어려오누나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의 별천지를 펼쳐주시려
모전 고행도 략으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의 불같은 한평생
위대한 선군의 그 한평생이

눈부리 아득한 저 사파바다
강성부흥에 아리로 울리는 CNC동음
에도

그림같이 아름다운 선경마을 추녀
아래도
아버지의 정파 열이
후덥개 스며있는 이 땅

우리 장군님
야전부사락에 풀안아 꽂피우신 탁원
사생결단으로 해쳐가신
전선길의 그 천만자족이
소중히 떠받든 이 강산

원쑤들의 정수리에

정의의 혁우회를 터쳐
민족의 만년보검을 안겨주신분
이 조선을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나게 올리신
질세의 애국자 우리 장군님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목숨이 된 선군
행복의 만년터걸을 다져
강국의 존엄을 펼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

행복이여라
선군으로 강대한 이 땅에서
내가 산다는것이
자랑이여라
선군의붉은기에 미래를 없고
평화를 앞날을 마중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장군님
민족의 국현신으로 이어 가신
그 전선길 천만리에서
비쳐오는 파스한 해살이
창가마다 웃고있구나

탁원의 이 강산을 무지개빛으로
휘감았구나
선군, 선군으로
한평생 풀에 우신 심장의 그 불길이
노을로 타오르는 내 조국의 하늘이여
아진 북 일으신 위대한 아버이의
그 영상

태양으로 눈부신
아, 이 땅의 아침이여

위대한 김정은장군 만세 높이
기어이 최후승리를 암아울

이 나라 수백만 병사들의 모습이
오, 여기에 별처럼 빛나고있어라

(시) 병사의 군화소리

기경호
행복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집을

주저없으리라
심장의붉은피를펄펄끓이며

당과혁명을 위하여
조국과인민을 위하여

설사지뢰밭이 가로놓인대도

내웃으며 헤쳐가리니

이제 관가리결전의 그날이 오면
원수님 그으시는 붉은화살표 따라
적전을 짓으며 폭포처럼 내달으려
통일의 경축광장으로

지축을 울리며 나이가리라

최후승리의 그날에 호호탕탕 노도
치는
병사들의 힘찬 발구름소리여
구르자평생

원쑤들이 더욱 혼비백산하게
구르자평생

인민들이 더욱 배심든든케

우리아이들이
삼천리를 뜨락처럼 활개치며 뛰놀
그날까지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이름이
영영 없어질 그날까지
오, 병사는 군화끈을 풀지 않으리

(시) 군기는 나를 부른다

김연

궁지와 용맹으로 심장은 높된다
무쇠철갑의 조종간을 들어잡으시고
우리원수님을 울리시던 멀적의
불교성이
군기의 퍼덕임속에 메아리쳐오
나니

웨쳤다, 군기는
답아오른 무한궤도로
적진을 짓뭉개며 내닫던
50년대의 전군길을 임주지 말라고
선군혁명의 전두에서
원쑤격멸의 불줄기를 더 세차게 뿐으
라고

명령만 내리시라
최고사령관통지이시여
승리의 전통이 빛나는 군기에
더 높부신 금별을 수놓으며
반미결전의 전장을 앞장에서 누비
거리니

아, 위훈의 군기는 나를 부른다
악의 소굴을 죽탕처버리라고
미제의 영원한 종말을 선언하며
승리의 열병광장에
백승의 기록 자랑스럽게 휘날리
라고

바라보면

나는 그 이름도 자랑높은
105땅크사단 균위병사
지축을 울리며 폭포처럼
승리의 돌격로를 앞에 두고
백승만을 떠쳐온
우리부대 군기를 우러른다

한번 휘날려
서울을 헤ঁ乒乓하고
다시 한번 휘날려
대전의 『불의의 선』을 짓뭉개며
빛나는 위훈을 세겨온 이 군기

근위병사 나를 결전에 부른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은붉은비행대의 육탄
정신으로
원수님의 불갈은 사랑의 그 음성이
밀없는 위훈에서 메아리치고있어라

어찌 풀로 세운 비라고 하라
한명한명의 전사들을
선군혁명통지로 생사를 같이하는
우리원수님의 전우애의 세계가
근위병사 하늘가에 반들어울린
승리의 위훈비!

그것은
위대한 김정은붉은비행대의 육탄
정신으로
나웃어 병사들을
불사신의 영웅으로
선군의 산아로
억세게 키워주는 신념의 불기둥!

이 위훈비앞에 삼가 경의를 드리며
14명 육탄용사들의 이름만을 읊지
않는다

장칠의 명장 수령님 손길아래
조국의 자랑으로 나듯긴 기발이여
우리장군님 새기신
선군령도의 첫 자족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전장에

더 높이 휘날린 기발이여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듯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전국
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를 하였다.
그는 이번 전시회는 나라의
과학기술전과 혁명인재육성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학생청년들속에서
열정과 세계를 앞서나갈 배짱
을 지니고 최첨단돌파전을
힘 있게 벌리는 파장에 이룩한
1700여 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정보기술상파자료들이 출품
되었다.

개막식이 24일 3대
혁명전시관에서
에서 진행되었다.

김승두교
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
문, 청년동맹
일군들, 학생
청년들이 여
기에 참가하
였다.

전용남 청
년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이 개막사

는 이번 전시회에 600여 종의 전
시회기간 여러 나라 회사들

기전자체품과 식료품, 일용품, 의
약품, 농수산물가공품, 가정용품
등을 출품하였다.

우리나라와 로시아, 도이췰란
드, 모니카, 이탈리아, 중국, 카
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파 외국인들이 전시회장을 찾았

투영제 투사로 회관도 있었다.

모든 학생청년들은 과학기술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관문점】

북남고위급긴접촉은 24일 밤 조선중앙통신】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관문점에서 열린 북남고위급긴접촉이 24일에 끝났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주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집축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치

우리 행복, 우리 제도를 해치려는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 결판을 보자

준전시체제로 전환된 최전연지역 김화군에서

격전전야의 전투적인 당정치사업

군당위원회에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가 선
포된데 맞게 김화군당위원회에
서는 당정치사업을 확선식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조성령 정체의 요구에 맞게
군당위원회에서는 사업방향부
터 전투적으로 세웠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
며 필승의 신념을 알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
게 만들어나갈때 대 한 문제들에
당정치사업의 첫째가는 힘을 넣
고 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
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다. 인민군대식으로 승리
의 신심높이 초소와 일터마다에
서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전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영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성과 자기의
힘을 밟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군대와 민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
다는 것, 바로 이것이 혁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인의
정, 정전기관, 군로단체, 인민보
안,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등을
비롯한 생활현장들에 나
가 구두선통, 예술선통 등을 힘
있게 벌리며 농업근로자들의 정
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 있다.

모든 사업을 확선식으로 확고
히 전환시킨 군당일군들이 방송
선전과 함께 일군들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음소재지
와 원통리소재지를 비롯한 여러
장소들에 고성기를 설치하고 남
조선선교적발파와 관련하여 빛
어진 사례의 심각성을 깨닫는
방송선전을 즐기자며 벌리며 당
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적의 의지
를 존엄한 정열

자들의 가슴속에 거듭 깊이 심어
주며 그들이 조국보위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확선식
정치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
며 필승의 신념을 알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
게 만들어나갈때 대 한 문제들에
당정치사업의 첫째가는 힘을 넣
고 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
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다. 인민군대식으로 승리
의 신심높이 초소와 일터마다에
서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전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영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성과 자기의
힘을 밟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군대와 민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
다는 것, 바로 이것이 혁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인의
정, 정전기관, 군로단체, 인민보
안,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등을
비롯한 생활현장들에 나
가 구두선통, 예술선통 등을 힘
있게 벌리며 농업근로자들의 정
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 있다.

모든 사업을 확선식으로 확고
히 전환시킨 군당일군들이 방송
선전과 함께 일군들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음소재지
와 원통리소재지를 비롯한 여러
장소들에 고성기를 설치하고 남
조선선교적발파와 관련하여 빛
어진 사례의 심각성을 깨닫는
방송선전을 즐기자며 벌리며 당
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적의 의지
를 존엄한 정열

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깊이 해
설해주며 모두가 필승의 신심
높이 원쑤격멸의 성질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다.

군당위원회 사업계획에 따라
군계교양판 강사들이 열적의
기상이 나빠지는 현실에 들어
가 반제반미계교양을 실감
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복수열
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어 주고
있다. 『조국보위의 노래』,
『절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시
강사들과 노래 『내가 지켜온 조
국이 힘있게 울려퍼지는 속에
당면한 품ベ기전투실적은 나날
이 높아지고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전쟁승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원전교양사업
을 강화하고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전쟁승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원전교양사업
을 강화하고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전쟁승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원전교양사업
을 강화하고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전쟁승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원전교양사업
을 강화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혁
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품을
적극 따라잡아고 인민군대
를 성실성으로 원호하며 일
단 유사시에는 군대와 한전
호에서 생사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사랑하며 줄겨부르
는 노래 『직통형의 승리방』!

시시각각 정세가 긴장해질수
록 김화군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자국의 지성에 담긴
원호를 힘차게 부르며 한민족의
의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남조선군부호전 광들에게 죽
음을.

이것이 농장원들의 결심이고
풀베기전투장의 숨결이다.

한손에는 낫을, 다른 한손에
는 총을.

걸싸게 풀을 베어나가는 로동

적원군 대원들의 기습기습은 원
쑤격멸의 의지로 무섭게 불고
있다. 시간이 흘러 수록 풀베기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
고 있다. 퇴적장마다 풀더미가
높이 쌓여진다. 천백 배 보부일
기가 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다.

여기 최전연지대의 풀베기전
투장은 그대로 원쑤격멸의 격전
장이 되어 있다.

전천리 5인민반에 살고있는
조옥분, 구봉리 9인민반에 살

이동해설강의를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에서는
당보를 비롯한 당수관들을 즉
시 전후현장에서 배포하고 있으
며 당초급일군들이 독보를 비롯
한 사업교양사업을 어려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
도록 하고 있다.

확선식으로 진행하는 군당위
원회 일군들의 정치사업에 고
무된 군인의 일군들과 당원들
과 근로자들은 고도의 각동상
태를 갖추고 일만 명이 내리
면 다지고다져온 선군의 위력
을 풍靡발시켜 퍼져 퍼져 소탕해
버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업
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한 세대도 농칠세라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후 군
인민위원회 일군들은 가정세
대들을 찾고 한다.

이들에게는 보풀진 자그마
한 수풀이 있다. 거기에는 자
기들이 담당한 주민세대들의
가족수로부터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
적으로 적혀 있다. 인민정권기
간 일군들은 주민들의 생활
상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

고았다. 한 세대도 놓칠세라!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그대
로 비껴있는 인민정권기인 일
군들의 수첩을 보며 주민들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에게의 의거
하여!』라는 당의 구호의 창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으
며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굳건히 사수할
결정한 조국보위정신으로 가
슴불태우고 있다.

더 높이 올려가라 배움의 글소리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의 모든 학교들에서는 단 하루
도 수업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평일에 대 한 꿈
과 희망의 나래를 펼친 젤치
며 활기로 넘친 교과길에 오
르고 있다.

전선지대를 누르고 있는 무
거운 공기를 헤아르며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지는 아이들
의 글소리와 노래소리를 들
으며 사람들은 승리의 신심
을 더욱 굳게 다가들고 있다.

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활동
을 벌려 적지 않은 환자들을
완파시켰다고 한다.

도의 일군들과 보건부문에
서도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날부터 군에서 요구하는 의
약품들을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우고 보
건일 군들이 긴장한 정체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
도록 하고 있다.

여인민군인들에게 보내주
었다.

전화의 나날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면 인민군대를 물
심량면으로 원호하던 그때처럼
금강군 인민들처럼 김화군 인민
들은 한 사람같이 떨쳐나온 군
대원호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있다.

본사종군보도반
(현지에서 전송)

화선군의 된 심정으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내각과 보건성의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와 준전시상태의
긴장한 속에서도 우리 당파
국가의 인민적보건시책이 철
인원화되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
정을 다져가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김화군
에서 보건일 군들은 19
50년대의 화선군의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

선군의 위력으로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다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탁월한 선군혁명도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외호전세력의 악랄한 정치군사적 도발책 등을 신군의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시는 그이의 안방에는 자주통일의 새로운 지평에 펼쳐질 광운은 결심과 천하제일의 달력을 이 비껴 있었다.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조국통일선원미와 우리 인민의 전승의 역사와 전하는

는 판문각로대에 까지 여유자작하게 나가시며 쌍방간으로 남녘땅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방에는 자주통일의 새로운 지평에 펼쳐질 광운은 결심과 천하제일의 달력을 이 비껴 있었다.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조국통일선원미와 우리 인민의 전승의 역사와 전하는

판문점의 어려운 꽃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을 놀라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싸울이 이루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이 품을 끊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라고 통제하게 말씀하시였다. 판문점에 떠먹여 세우는 그이의 걸음걸음에서, 분별의 장벽에 파구를 풀어놓고 정전협정조인은 벽마을이 되어 미래를 펼쳐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타임정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쌩아울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해히 응호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의 애국자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폐부로 새기며 격정의 환희를 마음속으로 펼치고자 하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백두의 눈보라만리,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았던 우리 조국, 위대한 군관님께서 반제 반미 대결을 진두지휘하시며 지켜주신 민족의 존엄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강국건설로 더욱 빛내이시려는 것은 타락한 선군령장이 신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철

대불변의 의지이다.

우리 거예는 오늘도 주제 101(2012년) 3월호 흐르는 공기에도 맹렬한 긴장에서 서린 판문점을 찾았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강언임대하신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청천에 낮에 적들이 고요에 바라보이

았으며 리성을 잃고 해瞪민적은 온 일체가 없었다.

피뢰당국자들이 직접 북침전쟁선동의 맨 앞장에서 날치고 있다.

지난 15일 박근혜는 영문

을 알수 없는 『지뢰 폭발』사건이라는 것을 거들며 그 무슨

『반호한 대응』에 대해 침략전쟁으로 밟혔다. 이것이 모략적인

들의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의해 군사분제선일대에

는 사소한 무탈한 충돌도 삐

는 국도의 위협이 서리고 있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이 엄중한 사

태와 관련하여 미국은 남조선피

뢰들을 골고루 펼쳐면서 불

순한 속심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방위원회 정책

국 담화를 발표하여 원로인 피

를 『지뢰 폭발』사건을 『북도발』로

매도하는 피뢰당의 모략으로

『지뢰 폭발』이라는 것을

놓아놓고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피뢰들의 북침선동이

야말로 반공화국심리모략과 군

사적도발에 무지개 내렸다.

지난 18일 전연부대에 나타난

최유희역도는 실리전이 『세

기』에 걸친 대결상황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한 전제에서

이렇듯 광란적으로 감행되고 있

는 피뢰들의 모략적인 전쟁선

동행위가 어떤 엄중한 사태를

빚어내고는 하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피뢰들은 18일 미

제가 북침전쟁도발을 목적으로

갖고 날조로 주장하였다.

성명은 이것은 공화국에 대

는 광범위한 침략전쟁 행위,

북남관계를 최악의 사태에

몰아가는 중대범죄라고 단죄

하였다.

제일본조선민주주성동맹(네

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가 박

근혜 역도와 남조선피뢰들은

전광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여 22일 성

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전체 너성동맹일

군들과 동포녀성들은 어머니조

국당에 일축시킨 미제와 그 앞

같이 남조선의 박근혜역적폐당

과 피뢰군부호전광들이 대안 치

솟는 분격을 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은 그 무

슨 『북포란발사』사건이라는 것

을 조작해내고 그를 구실로

공화국령토에 수십발의 포사

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성명은 규

탄하였다.

성명은 제일동포녀성들에게

있어서 조국의 안전과 평화는

목숨보다 귀중하다고 하면서

는 판문점의 어려운 꽃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공화국의 신

는 판문점의 어려운 꽃을 둘러보시는 그이의 안방에는 자주통일의 새로운 지평에 펼쳐질 광운은 결심과 천하제일의 달력을 이 비껴 있었다. 어버이 수령님의 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떤 미승우의 역사적사변들로 이어지는가를 거예는 똑똑히 보았다.

주제 101(2012년) 12월 12일 해에 온 거예에게 코나큰 민족적지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내비반통일세력을 예상한 월주를 내린 원공기구성『광평성-3』호 2호기의 성과는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강국으로 더욱 높여 밝내여 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령적인 렇도가 아온 5천년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세상에 높이 떨쳐지고 있으며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는 더욱더 앞당겨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면 항일혁명선

렬들의 멀지의 뿐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바탕방정신이 온 나라에 세차례

돌파되었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온 세상에 높이 떨쳐지고 있으며 민족자

주위업의 최후승리는 더욱더 앞당겨지

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인사는 『조선의

장대 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을 통지해서 계시여 이북

의 미래는 창성당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제2회 훈련하신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울것

이다.』라고 격찬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당의 높은 존엄을 강하게

핵무기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 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해위함이 계속되는 한

대 통로를 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높이 모시었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조국통일의 빛은 미

래도 확고히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절의

진리로 새겨안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사상과 평도

입체로 결합되면서 밝은 청을 모시고 모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선조선

지도부는 더욱 높아졌다. 그때마다

조선반도를 풀어놓아 전국민을 건

고민으로서 조선반도를 풀어놓아 전국민을 건